

중학생 1600명에 꿈나눔 '삼성드림클래스'

5개 대학서 겨울캠퍼스 수료식 대학생 멘토로 '나눔의 선순환'

삼성드림클래스 겨울캠퍼스가 올해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22일 전국 5개 대학에서 드림클래스 수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는 삼성 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 정은승 사장이 참석해 학생들과 멘토를 격려했다. 정 사장은 "중학생, 대학생 모두가 각자의 꿈을 찾고, 나눔을 실천하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삼성드림클래스는 2012년부터 교육 여건이 부족한 지역 중학생에 대학생 멘토로 붙여 학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전국 읍·면·도서지역 중학생 1600여명과 대학생 멘토 540여명이 참여했다. 누적으로는 중학생 8만2000여명, 대학생 2만3000여명이 드림클래스를 거쳤다.



삼성드림클래스 겨울캠프 모습.

/삼성전자

참가자들은 3주간 대학교 캠퍼스에서 멘토들과 합숙하며 영어와 수학을 집중 학습했다. 지난 여름캠프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코딩과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 육성 기회도 가졌다. 음악회 관람과 대학 전공 박람회도 참가해 꿈과 재능을 모색

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학창시절 배움을 받았던 학생이 대학생이 돼 멘토로 참여하는 '나눔의 선순환'도 이어졌다. 이번에만 72명, 지난해까지 누적 194명이 드림클래스 출신 멘토로 활동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LGU+, 청각장애인 22명에 보청기 전달

LG유플러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단체 사랑의 달팽이와 공동으로 22명의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27대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임직원 동료간 칭찬감사 메시지를 보낼 경우 1건 당 1000원을 적립, 기부하는 '칭찬 감사 일파만파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모아진 기금은 전국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에 사용된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랑의 달팽이와 협력해 고가의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각장애 아동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총 57명의 청각장애인에게 63대의 보청기(총 630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지난 2019년 12월 LG유플러스와 사랑의 달팽이가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을 위해 공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청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바이러스의 습격



기지 수첩

이 세 경 <유통&라이프부>

새해 시작과 함께 A형 독감이 찾아왔다. 지난 11월 미리 맞은 4가 백신도 소용이 없었다. 이른 아침 병원을 찾으니, 마스크를 쓴 대기자가 이미 30명을 넘어섰다. 의사는 "지난 연말부터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며 "예방접종을 한 환자 대부분"이라고 했다.

백신 무용론은 매년 반복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2월 그해 겨울 유행이 예상되는 독감 종류를 권고하고, 제약사들은 대비한 백신을 제작한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독감에 걸리는 사례는 빈번하다. 2017년에는 WHO의 예측이 빗나가는 미스매치로 독감 환자가 급증하기도 했다. 현재 유행하는 A형 독감은 3가, 4가 백신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H1N1과 H3N2지만, 예방효과는 적었다. 의사는 "미스매치는 아니라고 하지만 농천게 있는 것 같다"며 "A형 매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했다.

치료제 수급도 문제다. 기자는 병원에 링거액으로 된 독감

치료제(GC녹십자 '페라미플루')를 요구했지만 품절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페라미플루는 1회 투여만으로 독감을 치료할 수 있는 주사제로, 5일동안 복용해야 하는 타미플루보다 각광을 받는다. 올 겨울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페라미플루는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뒤늦게 독감 백신을 맞으려는 환자들이 병원을 찾고 있지만 백신도 부족한 상태다. 4가 독감 백신은 이미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품절 사태를 겪고 있으며, 3가 백신도 재고가 남은 병원을 수소문 해야 맞을 수 있다. 판매가 안된 백신은 모두 폐기 수순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급이 늘 빠듯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국 우한시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중국 내 감염자는 300명이 넘었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퍼졌으니 전염력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 도 바이러스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판데믹 상황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매년 겪는 독감에도 구멍이 뚫린 감염병 대응 체계를 믿어도 될지 걱정이다. 부디, 건강한 설 연휴 보내길 바란다.

/seile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23일 (음 12월 29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원하는 바가 있으면 자식에게도 표현하라. **48년생** 삶의 질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 **60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대니 비옥한 땅이 되겠다. **72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도 없다. **84년생** 벼마타다 자칫 떨어진다.
- 37년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 **49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단처하다. **61년생** 말은 쉬우나 주위 담을 수 없다. **73년생** 백만 송이 장미가 발아래 깔려 있다. **85년생**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자.
- 38년생** 자식 문제에 끼여들지 마라. **50년생** 매매에 어렵던 문제가 풀린다. **62년생** 비상금을 활용하여 위기를 탈출. **74년생** 정서적 지지와 배려가 상대에게 힘이 된다. **86년생** 기다리던 금전 문제가 풀리는데 차량은 조심하라.
- 39년생**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니 오늘은 행복. **51년생** 마음 따로 몸 따로 움직인다. **63년생** 내가 놓은 덫에 내가 걸린다. **75년생** 흐르는 물처럼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87년생** 직장인은 특히 끝맺음을 잘해야 한다.
- 40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돌리니 꾸준히 노력. **52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지 마라. **64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른 법이다. **76년생** 동분서주해야 별 이익은 없다. **88년생** 어깨를 으쓱할 일이 생긴다.
- 41년생** 길을 나서면 우연한 행운이 온다. **53년생** 열정과 힘이 넘치는 하루. **65년생** 참고 기다리는데 고통받던 구슬수가 해결된다. **77년생** 오늘날만큼 자신을 위한 하루를 보내라. **89년생** 바쁘더라도 우편물을 꼭 확인해야 한다.

- 42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나갈 운. **54년생** 남이 차린 밥상에 마음이 쓰인다. **66년생** 모래 위에 쓴 약속은 바람 불면 지워져 버린다. **78년생** 벼는 익을 수록 고개를 숙이니 겸손해야 한다. **90년생** 뿌린 대로 거둔다 정직하게.
- 43년생** 헛된 희망이 눈을 가린다. **55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다. **67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79년생** 과거 인맥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 **91년생** 재물로 인한 분쟁이 생겨도 나에게 유리.
- 44년생** 용미, 소피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 **56년생** 고집을 피우면 부모도 외면하니 적당히. **68년생** 직장에서 기다리던 소식이나 오니 감사하다. **80년생** 먹을 복이 많으니 소회제 준비. **92년생** 버릴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
- 45년생** 현실에 만족하고 객기를 부리지 마라. **57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69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서명은 신중하게. **81년생** 작은 일에 일회일비하지 마라. **93년생** 힘들지만, 성의를 다하면 행운이 온다.
- 46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금전운이 상승. **58년생** 개척자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70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다. **82년생** 운이 상승하고 있으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94년생** 책임진 일을 주변 도움으로 쉽게 마무리.
- 47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59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승진 기회가 온다. **71년생** 요행을 바라지 말고 정도를 걸어야. **83년생** 성공한 사람 뒤를 따르면 실수가 적다. **95년생** 도전하지 않으니 기회도 없다.



김상회의四季

양보해 보라

얼마 전의 시절만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은 적잖이 볼 수 있었다. 부자들과 중산층이 강남에 포진해 있다 보니 요즘은 사회의 구조나 시스템이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경우가 힘들다 얘기한다.

그런데 올해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해이기도 하다. 또한, 상관의 기운이 강한 해여서 개인이나 사회에서 결출하고 혁혁한 인물로 대단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난다. 지금은 1월이다. 음력 7월 이후 연말 지나 보면 알게 된다.

쥐들은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있어 닥쳐올 일을 미리 감지한다. 사람 쥐피들도 환경에 적응력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 2월 4일 입춘(入春) 지나면서 경금(庚金) 임수(壬水) 병화(丙火) 갑목(甲木)의 구조가 맞게 자녀가 출생한다고 하자. 강남에서든 개천에서든 인생을 훌륭히 개척하여 수상 정도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다.

외중에 개띠 말띠 호랑이띠는 조심스러운 행보로 움직이는 게 좋다. 재살이 드는 해인데 달리 말해서 수옥살이라고도 한다. 수옥살은 어딘가에 갇히는 걸 말한다. 갇힌다는 의미는 꼭 교도소 같은 곳만 일컫는 건 아니다. 남들이 외면하거나 따돌림 때문에 혼자 있게 되는 것도 수옥살에 해당한다.

집안에서는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겨나면서 끼리끼리 갈라질 수 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익숙하지 않은 부서로 가면서 혼자만 곤란한 지경이 되는 걸 조심해야 한다.

예견되는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려면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면서 양보하는 게 좋다.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도 효과적이다. 각자 조상님의 가피를 마음에 지니면 고난을 이겨내는 건 어렵지 않다. 모쪼록 세상 복되고 좋은 기운이 가득 차오르면 하는 바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9	2				8	1	5
8	1						3	7
1	7		8		5		4	9
			6		7			
		4				5		
9			3		4			2
	5							8
	4	8				3	6	

				1	4	6		
6		9	5	3	8	1		7
	3	7	8			2	9	6
2		8					7	3
	1	5	3		7	2	4	
8		4	2	5	1	3		6
					9	8	4	

스도쿠 정답								
1	9	5	6	2	8	7	3	4
7	8	6	1	9	3	2	5	4
2	5	1	7	8	4	9	6	3
8	2	4	5	6	1	7	9	8
5	1	7	2	9	6	8	5	3
6	7	9	5	3	8	4	1	2
3	4	2	8	7	5	6	9	1
9	6	3	8	1	7	5	2	4
7	8	7	5	2	9	1	6	3
1	2	5	7	8	6	9	3	4
9	6	1	5	2	7	3	8	4
8	7	2	9	4	5	1	6	3
5	1	4	5	6	7	8	9	2
5	9	6	2	1	8	4	7	3
2	3	1	8	5	4	6	7	9
6	5	8	9	7	1	2	5	3
7	5	9	6	2	3	4	8	1

문제 제공= 보너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7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74호